

전남 청년 농부들, 부산서 첫 직거래장터 운영

롯데백화점 청년농부마켓에 23농가 참여
농특산물 80여종 선보여...시식·할인행사도

전남의 청년 농부들이 지역의 우수 농 특산물을 영남권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 농 부들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지난 달 28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청년농부 마켓'에 참가해 전남지역 신선한 농특산 물을 직거래로 판매했다.

이 행사는 청년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영남권 소비 자에게 선보이는 특별 행사로, 청년 농 부의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청년농 육성 교육, 융복합

인증 경영체 지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등 생산부터 제조 가공, 유통 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도시 백화점 내 상설 판 매 기회를 제공, 청년 농업인의 실질적 시장 진출을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오류(전남 청년농부 유통협동조 합)을 중심으로 청년농부 23농가가 참 여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구마 등 신선 농산물과 유자차, 귀리과자, 참기 름 등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80여 종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했다.

청년농부마켓에서는 생산농가와 소비 자가 직접 만나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전남의 청년 농부들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청년농부마켓'에 참가해 전남지역 신선한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 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청 년농가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맛 보도록 시식 및 할인 행사도 진행한단.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매

년 20여 차례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있 지만 청년 농업인을 위해 별도로 지원하 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침체 나 고물가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촉 활동을 강화 해 전남 청년 농부의 안정적 소득 창출 과 판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전, 국내 첫 '장기 배전계획' 수립 추진

하반기 공개...2028년까지 분산에너지 40% 증가 전망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 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 하기 위해 최초로 2028년까지 '장기 배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 정 배전계획으로 3년 이하 단기 중심이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 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 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 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해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 과 현재 약 26GW(전체 발전원의 17%)

수준이던 분산에너지가 2028년에는 약 36GW(전체 발전원의 20%)로 약 40% 증가해 기존의 전기사용자뿐만 아니라 다 수의 발전사업자도 배전망을 이용하는 상 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지역별 상황에 맞는 배전망 증설 과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분산에너지 확대 전 망을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장기 배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별 배전망 증설 정보와 운영 강화 방안, 신산업·분산에너 지 활성화 등 주요 추진 정책을 함께 대 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롯데광주점 '위자드물×해리포터'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8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 및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자드물×해리포터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마법사들이 사랑하는 다양한 굿즈부터 인생샷이 저절로 나오는 포토존까지 만나볼 수 있다.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인 원드 클렉션부터 승강장 발매트, 트렁크, 목걸이, 버터스카치비어 등 책과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이템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금액대별 마그넷, 버터스카치비어 등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며 SNS 참여 이벤트도 마련된다.

전남 소비자물가 2.2% ↑...년달연속 2%대

광주 1.9% 올라...오징어 등 수산물 상승세

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4개월 째 2% 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발 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4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 수 는 117.21 (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월 2.3%로 상승 전환 한 이래 4월 연속 (2·3·4월 2.2%) 2% 대 상승률을 이어가 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뛰었다. 식품은 3.2%, 식품이외는 1.6% 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신선어개는 10.1% 상승한 반 면,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은 2.1%, 4.4% 각 떨어졌다.

주요 등록품목은 고등어(13.3%), 갈치 (22.3%), 오징어(17.7%) 등 수산물 상 승세가 두드러졌다.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6 (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은 3월(1.4%)부터 두 달 연속 1% 대 상 승률을 보였다.

전남과 마찬가지로 오징어(30.7%), 고 등어(14.0%) 등 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전 반적인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송대용 기자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지정

대광그룹, 첫 대기기업집단 '74위' 진입

자산총액 6조1100억...중흥건설·BS 유지

광주·전남에 뿌리를 둔 대광그룹이 자 산규모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 원회의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88개)와 전제 4개 증가한 92개로 집계 됐는데, 지역에서는 중흥건설과 BS(옛 보성)이 포함됐고, 금호아시아나는 자산 총액 감소로 제외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자 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 로 지정·통지한 결과 지역에서는 대광그 룹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자산총액 5조 이상인 기업 집단 을 대기기업집단, GDP 0.5% 이상인 집단 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모두 92개다. 지난해 보다 4개 늘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대광을 비롯해 LG, 사조, 빔텍, 유코카케어리스 등 5곳이 신 규 지정됐다.

또 지역기업으로 중흥건설과 BS(옛 보 성)도 포함됐다. 지난해 21위였던 중흥건 설은 한 계단 뛰어올라 20위에 안착했다. 계열회사 수는 53개에서 51개로 줄었고, 공정자산총액은 24조9350억원에서 26조 7310억원으로 늘었다.

BS는 6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계열회 사 수는 65개에서 66개로 1개 늘었고, 공 정자산총액은 6조8920억원에서 7조2610 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첫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대 광은 74위에 랭크됐다. 계열회사 수는 64 개, 공정자산총액은 6조1100억원이다.

아파트 브랜드 '로제비앙'으로 알려진 대광건설이 모기업인 건설그룹이다. 1994년 사업을 시작, 주택개발 사업을 주 력으로 전국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 부문에서 대한저축은행, 모비딕벤처스, 모비딕자산운용을 운영 중이며, 로제비앙 GC 곤지암, 로제비앙 GC 순창, 홀리데이인 광주, 디케이 물류 등 레저·호텔, 물류 영역까지 사업을 다각화 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ECONOMY

2025년 5월 7일 수요일

광주TP 조직개편 '경영효율화'

유사업무 집적 R&D 축소 대응

광주테크노파크가 조직효율화 및 경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6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올해 경 영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영혁신TFT, 법인 경영전략회의, 경영 혁신실행TFT 등 다양한 혁신 TFT를 구 성, 운영하며 4가지 혁신(안) (조직혁신, 디지털혁신, 윤리혁신, 인사혁신)을 발굴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조직혁신에서 도출된 혁신(안)을 조직 개편에 반영해 기존 6본부 1실 1부설 14 팀 7센터에서 5본부 1실 1부설 12팀 6센 터로 1개 본부, 3개 팀·센터를 감축해 대 부서화를 추진했다.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유사업무를 집 적화하고 업무의 확정성을 고려해 기존 경영기획팀을 '전략기획팀'으로, 투자성 장팀을 '사업화브팀(위지지원센터)'로, I-PLEX창업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각 부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 내 과학기술 국제화제 발굴 및 사 업 수행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본 부를 '과학기술진흥팀', 'AI융합센터', '스마트제조모빌리티센터'로 재편했고, 정부 R&D예산 축소 등 대외여건의 변화 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무회계팀 분리·신 설을 통해 경영효율화 및 법인 자원 관리 강화를 도모한다.

새로 재편된 '전략기획팀'에서는 외부 공유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고 법인 데이 터 신뢰성, 활용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 경영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 DX화를 추진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양제철소, AI기반 CCTV 등

사고 예방 스마트시스템 구축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스마트팩토리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Smart Fool Proof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Smart Fool Proof 시스템은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 가능한 설비 장애 및 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철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안전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 과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제철소는 이를 위해 최근 제강부 슬라브 정정공장 통행로 내에 라이더 센서 기반 차 단기와 AI기반 CCTV를 설치했다. 슬라브 정정공장 통행로에는 크레인 이동구역이 혼재돼 있고 트레일러 등 차량도 수시로 드 나드는 곳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가 필요한 구역이었다. 이곳에 Smart Fool Proof 시스템인 라이더 센서를 활용 해 사람 감지 시 자동으로 차단기를 내려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차단기는 평소 시 닫힌 상태를 유지 하지만 구역 내 크레인 이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는 차량이나 사람이 감지되면 차 단기가 열여 통행을 허용한다. 반대로 크 레인 이동이 감지되면 차단기는 계속 닫 힌 상태를 유지, 안전을 확보한다. 이는 정밀 감지를 가능케 하는 라이더 센서를 적용해 작업자와 크레인, 차량 등을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작업자와 크레인, 설비 등을 CCTV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수 천장의 이미지를 AI에 학습시키고 축적 된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작업자와 설 비를 구분,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호정 광양제철소 제강부장은 "Smart Fool Proof시스템 구축은 슬라 브정정공장의 작업자와 차량의 안전을 획 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춘 시스템 개선 과 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 전 수준을 계속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 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

전남 5월 전통주에 '이제:배로 만들다'

배즙 발효 스파클링 과실주...전통 기술·트렌디 조화

전남도는 5월을 대표하는 이달의 전통주로 나주 페어 리플레이 (PEARE : PLAY, 다시 배로 즐겁 게)의 '이제 : 배로 만들 다'를 선정했다.

'이제'는 황금, 추황 등 다양 한 배 품종을 블렌딩해 착즙한 배즙을 발 효시켜 제조한 알코올 도수 5%의 스파클 링 과실주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승미 페어리 플레이 대표는 "나주배의 자연스러운 단 맛과 향을 살린 과실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배의 고장 나주까지 오게 됐다.

페어리플레이는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초 페리 전문 브루워 (Brew-Lab·양조실 험실)으로서, 전통주 양조 과정

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루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 배로 만들다'는 2025년 대한민국주류대상 과실주 부문에서 대상 을, 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기타 주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